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

백 지원

우리 학교에는 다문화 친구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반별로 다문화친구도 우미라는 것도 있다. 그것을 선생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선생님은 다문화친구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에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주거나,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필기할 때 내가 대신 해주기도 했다. 또 다른 선생님이 그 친구가 발표를 잘 하지 못할 때 내가 먼저 다문화친구라서 발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때부터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나를 찾지도 않고 다문화선생님과 다녔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 친구가 나에게 마음이 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늘어나고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영어마을체험이라는 것을 떠났다. 영어마을에서는 6팀으로 나누고 팀마다 외국인친구들이 1명씩 있었다.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평소 영어를 어려워하는 나에게 발표해야하는 상황이 왔었다. 떨리지만 발표하면서 영어실력이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표하려는 순간 그 외국인 친구가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하였다. 해석하면 ‘이 친구는 오늘 체험 온 친구인데 남들보다 영어실력이 떨어져서 발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대신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다. 보통 내가 못하는 발표를 남이해준다면 흥가분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내 기분은 전혀 흥가분하지 않고 안좋았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맞지만 시간이 조금 걸려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다른 수업시간에서도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 친구가 도와주니 혼자 하는 것보다 편하고 좋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필요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에게 묻지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도와주니까 나를 무시하고 동정하고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내가 다문화친구에게 했던 행동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문화친구도 내가 느낀 기분과 같은 기분을 느낀 것일까? 나는 그동안 다문화친구를 생각하며 하였지만 다문화친구의

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그냥 도와줬다. 나는 다문화친구를 도와준 것이지만 ‘내가 정말 다문화친구를 진심으로 도와준 것일까?’ ‘내가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서 도와준 것 아닐까?’ ‘나는 다문화친구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배려해 준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내가 그 친구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침해한 것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인권을 존중해 주지 못한 것은 사소한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침해하고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그 친구는 ‘다문화’ 라는 사회적 신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상처가 됐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한 행동들은 그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는 세균과 같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그 친구에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도움을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친구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는 세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프게 했던 세균에서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 친구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 갈 것이다. 물론 흉터는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흉터가 더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편견과 차별, 인권 무시로 인해 많은 심리적 어려움과 관계적 갈등에 노출되어 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척하기보다 그들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차별 가득한 시선이 아니다. 차별과 차이를 알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성별에 따라,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위에 따라, 피부색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차별을 하고 인권을 무시한다. 나의 가진 것과 , 아는 것에 우월감을 갖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한 배려의 눈빛과 몸짓을 보여 준다면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슴에 남는 고마움으로 남는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